

# 시즌 첫 '메이저 퀸' 누가 될까

내일부터 한국여자오픈 선수권

김하늘·양수진·이보미 샷대결

한국프로골프투어도 개막



&lt;김하늘&gt;

&lt;양수진&gt;

&lt;이보미&gt;

한국여자골프의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제25회 태영애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가 12일부터 나흘간 펼쳐진다.

경북 경주시 블루원 보문 골프장(파72·6427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3000만원)을 걸고 역대 처음으로 3라운드가 아닌 4라운드로 열린다.

최근 5년간 성적을 보면 신지애(23·미래 예스)가 2006년과 2008년, 안선주(24)가 2007년, 서희경(25·하이트)이 2009년, 양수진(20·넵스)이 지난해 우승컵을 차지하는 등 한국여자골프 대표주자들이 승리를 나눴다.

해외로 진출한 신지애와 안선주, 서희경은 올해 대회에 출전하지 않지만, 디펜딩 챔피언 양수진과 현대건설-서울경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하늘(23·비씨카드)의 기세가 만치 않다. 특히 상금 순위(1억5700만원)와 평균 타수(70.30타)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는 김하늘은 지난달 열린 두 번의 한국여

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8위를 차지해 상승세를 탔고 있다.

김하늘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할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놓쳤다”며 “프로데뷔 이후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메이저대회 첫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금왕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뒤 일본으로 진출한 이보미(23·하이마트)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우승컵을 노린다.

이 대회는 SBS골프가 1~4라운드(SBS는 1라운드와 4라운드)를 생중계한다.

같은 기간 군산골프장(파72·7312야드)에

서는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볼빅·군산 CC 오픈이 열린다. 총상금 3억원이 걸린 이 대회에서는 지난주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인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장타자 김대현(23·하이트), 김형성(31)이 일본 대회에 참가해 국내과 간의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2개 대회에서 모두 텁10에 이름을 옮긴 황인준(37·토마토자축은행)과 상금 랭킹 2위인 박상현(28·안드레김골프)이 유력한 우승후보다.

이 대회는 J골프가 1~4라운드를 생중계 한다.

/연합뉴스

## 어니 엘스,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 日 골프전설 오자카·美 부시 전대통령도



‘빅 이지’ 어니 엘스(남아공·사진)가 9일(미국 시간)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열린 AP통신이 보

도했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특별하다”고 말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그 포드와 조크 허치슨, 골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월에 승진 전 CBS 스포츠 프로듀서 프랭크 케리니언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도왔다. 지난해 9월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엘스는 이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미국 폴리주 존 폴드리비치에서 입회식을 가졌다.

큰 체구지만 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빅 이지’라는 별명을 얻은 엘스는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 등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투어에서 62승을 기록했다.

엘스와 함께 일본의 골프 전설 카즈모 오자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